

사고 재해의 역사

김대호

한양의대 구리병원 정신과

외상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겪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류 역사와 항상 함께했다는 편이 더 맞는 말 같다. 이 글에선 현재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사고, 재해와 같은 외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어떻게 기술해 왔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세기 이전

인류 최초의 재해 기록은 기원전 14세기경 쓰인 구약성서의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이 자연재해 사건은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인류가 홍수로 인해 수몰되는 대참사였다. 이 홍

수에 대한 언급은 고대 희랍 문헌, 이집트 벽화, 심지어는 중국의 문헌에까지 나타나 있지만, 생존자들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사고나 재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고 자체보다는,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반응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학자가 노아의 방주보다는 기원전 8세기에 쓰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첫 문헌으로 손꼽는다. 이 서사시에서 호메로스는 전투 상황에 놓은 군인들의 공포와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잘 기술해 놓고 있다. 또한 외상 피해자의 심리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과정도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묘사는 현대에 와서 전투 외상 노출과 전쟁 범죄와의 관련성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니 참 놀라운 관찰력이라 하겠다.

기원전 6세기 중반에 쓰인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Gilgamesh Eposh)》에도 길가메시가 자기의 단짝 친구인 엔키두가 사망했을 때 충격을 받고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가 기록되어 있다.

기원후를 살펴보면 폼페이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이 있다. 로마의 법학자이자 서술가였던 젊은 플리니(Pliny the Younger)가 역사학자 타시투스(Tacitus)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AD 85년). 이 편지에서 젊은 플리니는 인근 도시에서 관찰한 베수비어스 화산의 폭발과 그 영향으로 자신과 어머니의 정신적 공황 상태, 공포에 젖은 시민들이 피난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비슷한 시기에 쓰인 신약성서에는 헤롯 왕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 유아 살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 가족의 슬픔이 적혀 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 2장 18절-

아들을 살해당한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을 묘사한 것이며,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같이 외상이 생긴 후 주위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현대의 연구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

· 1세기 이후 중세를 거쳐 외상에 대한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16세기 말에 집필된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에는 전투를 겪은 후 아킬레스와 호츠퍼리는 두 사람에게 생긴 심리 증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이 가능할 정도다. 17세기에 들어와서는 런던 대화재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 화재는 정확히 1666년 9월 2일 발생하여 5일간 런던 시내를 초토화시켰는데 87개의 교회와 가옥 1만 3200채가 재로 변했다고 한다. 당시 사무엘 피프스(Samuel Pepys)라는 영국의 고위 공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일기에 당대의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다. 피프스의 일기 중 런던 대화재를 목격하

고 생긴 외상 후 심리 증상을 기술했다.

“끔찍하고 심술궂은 유혈의 화재…… 우리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멀리 떨어진 곳의 굴뚝 화재 소식만 들어도 나는 무섭고 고통스러웠다.”

외상을 겪은 후 외상과 관련된 감각(sensory imprint)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 현상과 사소한 것에 의해 유발되는 플래시백(일종의 환각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또 화재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쓴 일기에선 각성 상태로 인한 불면증을 호소한다.

“어찌하여 오늘까지도 화재의 끔찍한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자는 날이 없는지 이상하다. 오늘 밤에도 화재의 공포로 인해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다.”

19세기 들어와서는 외상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의 남북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열차 사고였다. 남북전쟁(1861~1865)에서 부상자를 치료했던 의사 다 코스타(Da Costa)는 전투를 겪은 군인 중 일부에서 각성이 증가하고 흥분하며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일 알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다 코스타 증후군(Da Costa syndrome)’, ‘군인의 예민한 심장 증후군(soldier's irritable hear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증후군은 전투 스트레스를 겪음과 관련하여 생긴 생리적 장애로 생각되었다.

민간 분야에선 산업 발달의 영향으로 대규모의 인위적 재해 및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열차 사고였고, 특히 영국의 철도 사고가 영향을 끼친 바 크다. 유명한 작가인 찰스 디킨스의 기록이 있다. 그는 1865년에 있었던 열차 충돌 사고를 직접 당하였고, 또 구조에 참가했는데 대형 사고의 구조 작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잘 묘사했다.

“시체와 죽어가는 사람들, 그 주위의 끔찍한 광경에서 2~3시간 일을 했다. …… 내 속이 정상이 아니었다. …… 그러나 철도가 움직이는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영국의 열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인 증후군을 ‘터널 질환’ 혹은 ‘철도 척추(railroad spine)’라고 부르기도 했다. 따라서 철도 사고와 관련한 소송과 배상도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신체적 부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 생기는 여러 증상들을 당시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이것이 피병인지 실제 질병인지도 많은 논란거리였다. 1862년 유명한 의학 잡지인 《란셋(Lancet)》에는 “철도 여행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실렸는데, 이 글의 요점은 손상을 입은 신체 기관보다는 그 기관의 적절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계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 의학은 인간의 마음과 몸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불안’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을 신체의 질병 때문이라고 오해했다. 이렇게 신체가 원인이 라는 학설을 당대의 유명 외과 의사 존 에릭슨이 대표적으로 설파했다. 그는 철도 부상 환자의 심리적 문제를 신체적 원인, 즉 척수의 진동(척수 진탕)으로 보았고 당시의 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점차로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자면 클라크는 에릭슨의 주장대로 척수 진탕이 실제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하였고, 존 퍼노 조르단(John Furneaux Jordan)이란 외과 의사도 신체와 심리, 두 가지 요인 모두가 원인이라고 했다.

1883년 에릭슨의 제자인 페이지(Herbert Page)는 심리적인 원인을 제기하고 심한 공포 하나만으로 이런 질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즉, 공포의 심리적 영향이 주된 원인이고, 사고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의식이 반응하여 직접적으로 신경계의 생리적 변화(화학적으로 추정)를 야기,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현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신경생물학적 기전에 견줄 만한 학설이다. 페이지의 학설을 통해 사람들은 정신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철도 척추'는 결국 '철도 뇌', 나아가 '철도 마음'의 문제가 되었다.

1888년경에는 오펜하임 (Hermann Oppenheim)이 '외상성 신경증'이란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신체론자(organist)였던 그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중추신경계의 미묘한 분자 변화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프랑스 파리의 살페트르 (Salpêtrière) 병원에서는 샤코트(Charcot)가 히스테리

아 환자를 대상으로 성적 외상과 정신 질환의 관계를 밝히기 시작했고, 피에르 자넷(Pierre Janet)과 프로이드도 같이 연구에 동참하였다.

19세기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크레펠린(Kraepelin)도 ‘공포 신경증(Schreckneurose)’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고나 부상을 겪고 난 뒤 생기는 심한 감정적 격변이나 급작스런 공포로 인한 여러 신경 및 정신 현상을 묘사하였다.

20세기 초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재난정신의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에드워드 스티에린(Edward Stierlin)이 있었다. 재해가 정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그는 특히 극한적 상황에서 정신 건강을 잘 지켜나간 사람들을 연구하여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그는 격렬한 감정과 공포가 ‘공포신경증’이나 외상성 신경증의 원인 중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으며, 감정이 신경계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이 신경증을 유발하는 배경이라 가정했다. 또한 인위적 재해(철도 사고, 광산 재해)와 자연재해(지진)를 구분하기도 했다. 그 외에 1907년 발생한 메시나 지진의 피해자 경우 25%가 악몽과 같은 수면 장애를 보였다는 문헌이 있고, 1914년에는 헤스너드(Angelo Hesnard)가 선박 폭발 사고 당시의 구조 인력이 보였던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기술했는데 이 연구는 1차 세계대전

의 외상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1차 세계대전에 전쟁 스트레스의 영향을 여러 의사들이 기술하였는데, 이 중에는 프로이드도 있었다. 그는 전쟁 외상이란 자극이 너무 강력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피하기 힘든 마음의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이 당시에 나온 용어 중에 ‘탄환 공포(shell shock)’가 있다. 예를 들어 한 프랑스 군인이 자신이 있던 참호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매장되었다가 부상 없이 탈출하였는데, 평상시에 심박동이 60회 정도였다가 옆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면 120회까지 올라갔다고 보고했다. 1916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영국 부상자 중 탄환 공포 증례가 1만 6000명에 다다랐다. 히스테리아, 착란, 신경 실조, 피로가 가장 흔한 증상이었다. 발생 형태에 따라 급속 유발형(precipitous)과 점진형(gradual)으로 나누었다. 이 ‘탄환 공포’라는 용어는 영국군 정신과 군의관이었던 찰스 마이어스(Charles Myers)가 처음 사용했는데, 직접적으로 포화에 노출되지 않은 군인들에게도 이 질환이 보이는 것을 보아, 이는 순전히 정서적인 원인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즉, 마이어스는 전투 신경증이 뇌의 분자적 동요(molecular commotion)와 같은 신체적 원인이라는 가설을 반대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에서 정신의학이 얻은 교훈, 즉 실제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고 정신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당 시대를 지배했던 정신 분석 이론, 즉 환경보다는 마음속의 무의식적 갈등에 의해 정신 질환이 생긴다는 이론에 의해 무시되었다. 따라서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외상 연구가 매

우 드물었다. 예외적으로 1934년에 인도 대지진 후 심리적 증상을 관찰해 보고한 프라사드 (Prasard)가 있었고, 그 외에 저명한 아브람 카디너(Abrahm Kardiner)가 있다.

미국 참전 군인들을 치료하던 카디너는 환자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1941년에 저서 《전쟁의 외상 신경증(The Traumatic Neuroses of War)》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환자들의 증세들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외상과 현 증상 사이의 관계가 파악되기 전에 진단을 받았던 히스테리아, 피병, 간질 등 여러가지 병명을 소개했다. 카디너는 외상성 신경증 환자들이 환경의 위협에 대해 각성과 예민함을 계속 보인다고 하면서, 이 신경증의 핵심을 ‘생리 신경증(physioneurosis)’이라고 했다. 따라서 카디너는 현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개념에 가장 영향을 준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정신의학자들이 여러 정신과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치료했다. ‘전투 신경증’이라는 용어도 사실 이때 소개되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민간인에 대한 조사도 있다. 대공습을 겪은 영국 청년의 8%가 심리적 증상을 보였는데, 악몽, 전쟁과 연관된 공포, 전쟁 관련 자극에 대한 정신 생리적 반응, 회피 반응, 행동 문제 등이었고, 런던 대공습시 대피했던 아동들의 심리 연구도 있었다. 종전 후에는 전쟁 포로나 나치 수용소 생존자들의 후유증 연구가 뒤따랐다. 1943년 아들러(Adler)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보스톤 코코넛 그로브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 생존자들의 ‘외상 후 정신 후유증(post-traumatic mental complication)’을 발표했다.

20세기 후반

전쟁과 관련한 정신 질환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는 1952년 정신의학의 공식적 진단 체계인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 제1판에 대스트레스성 반응(gross stress reaction)이란 병명을 추가하였다. 심한 신체적 요구나 극단적 스트레스, 예를 들어 전투, 민간 대참사(화재, 지진, 폭발 등)에 노출된 경우이며, 대부분 전에 정상적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당하고 생긴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단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1950년대 중반에 걸쳐서는 한국전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서 자연재해와 산업 재해를 경험한 민간인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선구적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956년 블로크(Bloch) 등은 미시시피주 한 동네를 초토화했던 토네이도로부터 생존한 185명의 청년을 면담하여, 많은 수가 악몽, 외상과 관련한 놀이, 흥분, 토네이도와 관련한 자극의 회피 등을 보인다고 했다. 1957년의 선박 침몰 사고 생존자 연구, 1962년의 알라스타 지진, 1968년의 브리스틀 홍수 등의 연구로 인해서 이런 생존자들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강조되었다.

1972년에는 레이시(Lacy)가 영국의 한 초등학교를 덮친 산

사태 때 생존한 사람을 2년 후에 조사했는데, 수면 장애, 등교 거부, 밖에 나가서 놀지 않으며, 불안정성, 야뇨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했다. 1970년대 초부터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적응에 대한 보고들이 나왔으며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외상 연구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켐페 (Henry Kempe)의 '매 맞는 아이 증후군', 버기스와 홀스트롬 (Burgess & Holmstrom)의 '강간 외상 증후군', 스트로스(Murray A Straus)의 가정 폭력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3판(DSM-III)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정신의학의 진단에 외상의 대표적 질환이 포함된 계기는 외상 연구의 시금석이 되었다. 이후 굵직한 대형 사고 등을 중심으로 사고, 재해 연구는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1990년대 들어와서 걸프전, 지진, 내전, 오클라호마 폭발 사건, 그리고 2001년 뉴욕무역센터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비극을 중심으로 그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2001년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나 폭력에 의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연구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나 대규모 사고의 부상자들을 진료하고 관찰한 경험을 통해 의학의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재난과 사고에 대한 정신의학도 역사 속의 희생을 통해 발전해 온 것이다.

참고문헌

- 은현정 · 이선미 · 김태형 (2001). 일 도시 지역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 《신경정신의학》, 40권, 581-91.
- 이근후 (1994).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SM-IV)》. 하나의학사.
- Breslau N. et al. (1998).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community. the 1996 Detroit Area Survey of Trauma Arch Gen Psychiatry 1998, 55, 626-632.
- Daly R. J. (1983). Samuel Pepy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r J Psychiatry 1983, 143, 64-68.
- Micale M. S., & Lerner P. (Eds.). (2001). Traumatic pasts : history, psychiatry and trauma in the modern age, 1870-1930.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igh P. A., & Bremner J. D. (Eds.). (1998).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a comprehensive text. New York : Pearson Allyn & Bacon.
- Van der Kolk B. A., Heron N., & Hostetler A. (1994). The history of trauma in psychiatry. Psychiatric Clin North Am 1994, 17, 583-600.
- Van der Kolk B. A., Weisaeth L., & Van der Hart O. (1996). History of trauma in psychiatry. In : van der Kolk B. A., McFarlane A. C., & Weisaeth (Eds.). Traumatic stress :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New York : Guilford, 47-74.